

(참고자료-참조45)

성남 분당 수내교 E등급 판정...14일 오후 10시부터 전면 통제

기사입력 : 2023.08.14일 15:44 | 최종수정 : 2023.08.14일 15:44



가+가+프린트

[성남=뉴스핌] 정종일 기자 = 경기도 성남시가 분당구 수내동과 역전동을 잇는 수내교를 14일 오후 10시부터 전면통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.



정밀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은 14일 오후 10시부터 전면통제에 들어가는 성남시 분당구 수내교 전경.
[사진=정종일 기자 2023.08.14 observer021@newsipm.com]

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지역내 교량 전체를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갔고 수내교는 지난 5월 용역을 착수해 두 달여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이날 E등급 판정을 받았다.